

"나는 기생충이다"

편충(鞭虫) 이야기 ①

李 純 炯

나는 아마도 한국의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기생충이라 자부하는 편충(鞭虫)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친척 회충과 항상 사이좋게 따라다니지만 회충보다는 우리 편충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충이 회충을 따라다니는것이 아니라 회충이 우리 가는데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는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편충은 생김새가 채찍같이 생겼다 해서 한문으로 채찍편(鞭)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便자로 잘못쓰는 분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잘못쓰는것 처럼 실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름을 잘못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올바르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편충은 이름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학명(學名)으로는 *Trichocephalus trichiurus* 라 부르는데 이 뜻은 실같이 가는 머리를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이는 *Thichuris trichiura* 쓰는것이 옳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머리를 꼬리로 잘못알고, 실같이 가는 꼬리를 가진 기생충이라 부르게되면서 생겨난것입니다.

옛날사람들은 우리 편충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으레 다른 짐승처럼 굵은 곳이 머리고 가느다란 곳이 꼬리로 착각해서 호적에 올려버렸기 때문에 개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충은 우리가는데를 졸졸 따라다니답니다. 채찍같이 생겼다고 해서 「채찍편(鞭)자」 편충이란 이름이 붙었

우리는 기생충중에서 기린아입니다. 왜냐구요? 목이
 기린처럼 길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목길이의
 몸이



편충이야기

나중에 우리의 특수한 머리구조를 관찰한 학자들이 Trichocephalus 라 고쳐 부르자고 하였지만 아직도 고집센 사람들이 우리 호적에 등록된 이름은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이름이라 할찌라도 고쳐서는 안된다고 우기면서 계속 옛날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편충은 기생충중에서 기린아(麒麟兒)라 할수 있지요. 왜냐구요? 그야 우리 목이 기린과 같이 길어 우리 몸길이의 3/5을 차지하기 때문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의 키는 숫컷이 3~4.5cm, 암컷이 4.5~5cm 이니 2~3cm 가량이 목이 되고 나머지가 몸이 되는 셈입니다. 이가 늘고 긴 목부분과 머리를 옛사람들이 꼬리로 착각한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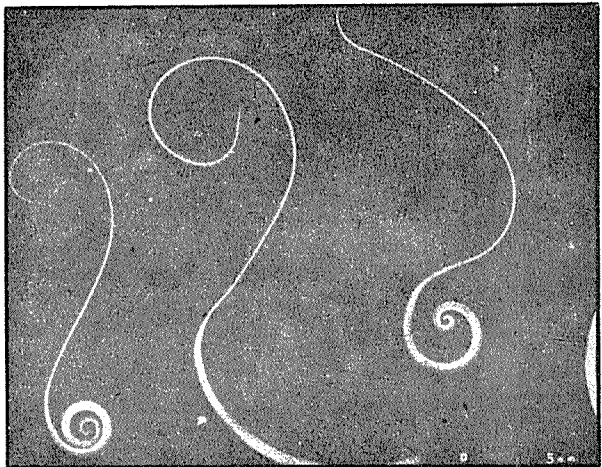
몸부분은 목에 비하면 훨씬 굵은데 숫컷은 360° 이상 둥글게 말려 있고 그끝에 꼬미침이 나와있으며, 암컷은 그대로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1)

우리 편충들은 사람들의 맹장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2세가 될 알을 부지런히 낳는데, 평균 우리 편충 암컷 한마리가 하루에 5,000~7,000개를 산란합니다.

이 알은 모양이 아주 예쁜 술통모양을 하고 있으며 양쪽 끝에 막개까지 갖고 있어 누구나 한번만 보면 금새 다시 알아볼수 있기때문에 의과대학생이나 임상병리사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답니다.

하여간 우리 조상들중에 술을 좋아한 분이 있었다는 말을

(사진 1) 편충의 암컷과 수컷.
 가는 머리와 목부분이 길고 굵은 꼬리부분이 말려있는것이 수컷이
 고 밋밋한 것이 암컷이다.



듣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술통을 닦았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사진 2)

이 편충들은 사람의 대변과 함께 배출되어 바깥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 나온 알들은 곧 발육을 시작하여 보통 2~3주일이면 감염성이 있는 자충포낭(仔虫包藏卵)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3~4주 또는 수개월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충의 알은 회충알보다는 건조나 열 또는 추위에 약하지만 그래도 꽤 저항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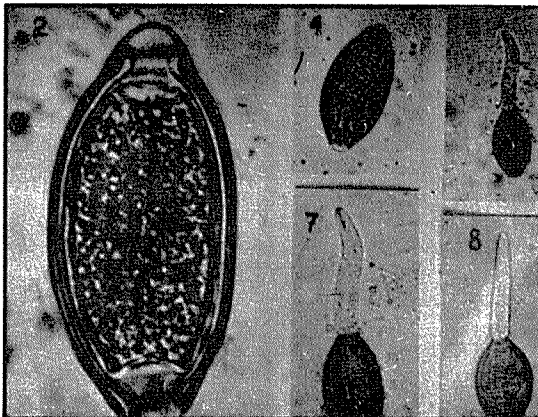
한예로 칠리의 산티아고市 부근의 한 고지에서 옛 잉카少女의 시체가 발굴되었는데 그창자속에서 우리 편충알이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9살난 소녀는 이미 450년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편충의 알이 얼마나 저항성이 크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감염형인 우리 편충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몸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창자에서 마개를 들치고 나오게되며 여기서 장용모속에 끼어들어가 3~10일동안 잠전하게 지내다가 청년기가 되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결국 맹장에 이르러 완전한 성충이 되며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알도 낳게 됩니다.

사람의 입을 통과해서 부터 우리가 맹장에 자리잡기 까지 30~90일이 걸립니다.

우리 편충은 회충이나 구충과 같은 친척들과는 달리 사람의 몸안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하지않고



(사진 2) 술통모양으로 생기고 알물에는 마개가 있는 편충의 알. 손창에 도달하면 오벌편 사진과 같이 마개를 들치고 애벌레가 나옵니다.



편충이야기

우리는 맹장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면서 술통처럼 개까지 않는 알을 하루에 7천개씩이나 낳습니다. 양쪽에 다

